한·일 불교계, 일본지진 희생자 1주기 추모법요

한일불교교류協, 9일 카마쿠라 광명사서

지진 피해 컸지만 한·일 양국 유대 실감

제7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도 열려

한국불교계가 지난해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사망한 이들의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법요식을 봉행하고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일본 정토종 광명사, 양국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3월 9일 오후 2시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카마쿠라(鎌倉)시 코우묘우지(光明寺)에서 동일본대지진 희생자 제1주기 추모 및 피해지역 복구 기원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정산 스님(前 천태종 총무원장), 부회장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능해 스님,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덕정 정사 등 한국 측 40여 명과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 스님,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西郊良光)·부회장 후지다 류조(藤田隆乘) 스님 등 일본 불교계 인사 150여 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요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후 1시부터 광명사

한·일 불교인사 200명 참석
지진희생자 추모하며 우애 다져
영산재 시연서 함께 눈물 흘려

법당에 모여 동북부 대지진 피해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시청했다. 법요식은 니시오카 료코 스님의 개식사로 시작됐다. 먼저 일본 측 법요의식 ▷삼봉청 ▷참회게 ▷표백문 및 추모·발원문 낭독 ▷개경게 ▷회향 ▷일체정진게에 이어 한국 측 법요의식은 ▷추모사 ▷영산재 및 살풀이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요식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부회장 보선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한일 양국의 국민과 불교계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의연히 대처하던 일본 국민에게 한국 국민은 감동했고, 동체대비의 자비사상을 보여준 한국 국민에 대하여 일본 국민이 감동한 것은 이심전심의 따뜻한 화답이었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또 "서방정토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희생된 영가와 그 남겨진 가족에게 항상하시길 기원드린다"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발원문을 낭독,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후지다 류조 스님은 감사말씀을 통해 "지난해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심각한 피해를 낳았지만, 동시에 지난 1년은 세계 각국과 지역에서 보내주신 많은 원조와 국경을 초월한 유대를 실감한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동아시아 불교권의 황금의 유대로 맺어지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러분의 큰 자비심은 일본국민을 격려하고 복구를 위한 큰 추진력을 주셨다"고 전했다.

광명사에서 진행된 추모법요식에서 천태종 범음범패보존회 소속 스님들이 영산재를 진행하고 있다.

추모사 직후 진행된 영산재는 화산 스님(삼광사 주지), 도현 스님(천태종 책임노전), 석용 스님(천태종 부책임노전), 진철 스님 등 천태종 범음범패보존회 스님 7명이 맡았다. 이어 중요무형문화재 이서예 씨는 한국 전통의 살풀이춤을 시연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정산 스님은 이날 법요식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일본국민이 흘린 눈물과 굳건히 참아온 인내의 시간이 이제는 강한 의지와 재건의 힘으로 회향되고 있다"며 "한국 불교도는 일본 국민의 희망이 실현되기를 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측은 법요식 전날인 8일 저녁 6시 한국 스님 및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를 위해 가마쿠라시 프린스호텔 연회장에서 만찬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 교류회 스님과 여성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만찬에서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지난 1월 입적한 지관스님과 2009년 양국불교 교류 30주년을 축하하던 일이 눈에 선하다"면서 "양국 불교계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7일 일본 야마나시현 코후(甲府)에서 일본 전통음식체험을 주제로 제7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개최했다.

공동취재단 제공

"위령재는 한·일 불교 우정 표현"

한일불교문화교류協 이사장 정산 스님

"한국 불교계가 커다란 아픔을 겪은 일본을 위로하는 것은 한국 불자들이 일본 불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두터운 정(情)의 표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희생자들의 1주기를 맞아 양국 불교계가 봉행한 위령재 및 지진피해 복구 기원 법요식(3월 9일)에 앞서 8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정산 스님은 일본 방문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정산 스님은 "한국 불교계는 작년에 일본을 찾아 지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재를 봉행한 바 있다"면서 "한·일 양국 불교계는 33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교류를 하면서 끈끈한 우정을 쌓아왔기에 위령재는 1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해 다시 일본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불교계는 역사적 상처와 계속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정산 스님은 "일본에는 '중국은 아버지의 나라요,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이 있다"며 "한국 불교계가 일본 불교계와 일본인을 위로해 주는 것은 바로 가족의 정(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불교, 일원상처럼 같이 갈 운명"

일한불교문화교류協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

"양국 사이에선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불자들은 일원상처럼 같이 할 운명입니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은 3월 8일 동일본 대지진 1주기 추모 위령재와 지진피해 복구 기원법요식을 봉행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국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일본과 한국은 결국 함께 운명이며, 적극적인 화합만이 해답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니시오카 스님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1년을 되돌아보며 "한 해가 지났다고 해서 불행이 다 끝났다거나 복구가 된 것은 아니다. 불행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 한국불교계가 잊지 않고 이곳 일본을 찾아 추모 법요식을 또 한 번 치러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양국 불교계가 힘을 합쳐서 그 비극을 이겨나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니시오카 스님은 7일 야마나시현 코후(甲府)에서 있었던 제7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는 여성불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월정사·日 선광사 평창올림픽 힘 모으기로

4월 1일 한국서 협약식 예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월정사, 평창군, 일본 나가노시, 선광사(善光寺)가 힘을 모은다.

평창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카마쿠라 광명사가 마련한 동일본대지진 희생자 1주기 추모법요식을 하루 앞둔 3월 8일 일본 카마쿠라 프린스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정사와 선광사, 평창군과 나가노시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주지 정념 스님을 대신해 7일 일본을 방문해 나가노 선광사 주지 와라쇼류·총무 다카카즈 후쿠시마 스님, 와시자와 쇼이치 나가노시장을 만나 주지 정념 스님 명의의 자매결연·교류협력 요청 공문과 이석래 평창군수의 서신을 전달하고, 협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월정사는 선광사에 보낸 공문에서 "양국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고, 양 사찰간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귀 사찰과의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면서 "귀 사에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매우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고 있어, 월정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견을 구한다"고 자매결연과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선광사는 일본 3대 사찰 중 하나이며, 일왕이 다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월정사는 4월 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선광사 주지와 총무, 신도, 나가노시장 등 15명을 초청했다. 협약식은 1일 월정사에서 열리며, 월정사는 선광사, 평창군은 나가노시와 각각 업무협약과 자매결연을 맺는다.

협약 체결 후 선광사 총무 다카카즈 스님은 평창군사암연합회 소속 사찰 스님과 불자, 평창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나가노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의 준비 상황과 실패 요인 등에 대해 강연한다. 또 일본측 인사들은 월정사에서 템플스테이도 체험한다. 나가노시장의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일정 조율 중에 있다.

원행 스님은 "월정사는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남긴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평창 동계올림픽을 환경·문화·경제 등 모든 면에서 성공하는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선광사에 자문을 요청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정사는 나가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선광사 동종 타종으로 시작된 점을 참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상원사 동종 타종으로 시작하길 희망하고 있다. 원행 스님은 "월정사는 평창의 대표적 사찰이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지를 관리하는 유서깊은 도량으로 개막식을 열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취재단 제공

봉 행

조동종 종조 동산존자 양개대화상 다례재 및
덕담당 심월 대선사 제5대 승정원장 취임법회

* 일 시 : 불기 2556년 3월 29일(음 3월 8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수락산 도선사내)

추대 봉행 위원장 : 총무원장 대은
추 대 위 원 : 해륜. 덕성. 원봉. 보경. 광혜. 혜천. 우담. 해권.
봉 행 위 원 : 법화. 혜광. 혜각. 혜공. 혜오. 청운. 정민. 무일. 혜법. 고우. 소원.
혜산. 송담. 소담. 월광. 청정. 법문. 시권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동종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02)2091-0408 / FAX 02)952-0408 홈페이지 : http://www.조동종.kr